

# KIA, 1패 뒤 3연승...통합 챔피언까지 1승 남았다

선발 임기영, 5⅓이닝 6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  
첫 포스트시즌 무대서 기량 뽐내...오늘 오후 6시30분 잠실서 5차전

KIA 타이거즈가 8년 만의 통합 우승에 1승만을 남겨뒀다. KIA는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포스트시즌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4선승제) 4차전에서 선발 임기영의 호투를 앞세워 5-1로 완승을 거뒀다. 한국시리즈 1차전을 내준 KIA는 2차전에서 양현종의 완봉 역투에 힘입어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린 후 3, 4차전을 모두 승리했다. 앞으로 1승만 추가하면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한다. 8년 만에 통합 우승을 거머쥐게 된다. 임기영이 눈부신 호투를 선보였다. 5⅓이닝 6피안타 6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다. 처음으로 등판한 포스트시즌 무대에서 도 당당하게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 임기영은 직구와 체인지업 위주에 피칭에 커브, 슬라이더, 투심 등 다양한 구종을 선보였다. 특히 타자 앞에서 가리웠던 체인지업이 발군이었다. 4회를 제외하고 매회 안

타를 허용했으나 영리한 피칭으로 두산 타선을 막아냈다. KIA 3번타자 로저 버나디나는 1회초 1타점 결승 3루타를 포함해 4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으로 타선을 이끌었다. 총격의 3연패를 당한 두산은 버림 끝으로 몰렸다. 30일 오후 6시 30분 잠실구장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반격에 나선다. 선취점은 KIA가 뽑았다. KIA는 1회초 1사 후 김주찬의 2루타로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곧바로 로저 버나디나의 1타점 3루타로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 최형우의 1루수 앞 내야안타로 1점을 추가했다. 두산은 4회말을 제외하고 매회 주자를 내보냈지만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3회 1사 후 민병현과 오재원의 연속 안타로 추격 찬스를 잡았지만 박건우와 김재환이 각각 삼진과 2루수 앞 땅볼로 볼러나 아쉬움을 남겼다. 두산은 6회 또다시 기회를 만들

었다. 2사 후 오재일이 평범한 중전안타를 쳤다. 이때 앞으로 뛰어 나오던 KIA 우익수 이명기가 공을 뒤로 흘렸다. 오재일은 2루까지 안착했다. 임기영을 마운드에서 끌어내렸지만 KIA의 세 번째 투수 김운동을 공략하지 못하면서 추격 점수를 뽑지 못했다. 이에 분발한 KIA는 7회 쉼표 점수를 올렸다. 7회 선두타자 이범호의 중전안타와 김민식의 희생번트, 김선빈의 볼넷 등으로 2사 1,2루를 만들었다. 이후 김주찬은 투수의 두 번째 투수 함덕주를 상대로 유격수 앞 땅볼을 쳤다. 그대로 이닝이 종료되는 듯했다. 그러나 두산 유격수 김재호가 살짝 튀어오르는 타구를 제대로 포구하지 못했다. 대주자 고장혁은 3루를 돌아 홈으로 뛰어들었다. 이후 버나디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4-0을 만들었다. 두산은 8회 2사 1,2루에서 넥에 반스의 적시타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7 KBO 한국시리즈 4차전 KIA 타이거즈 대 두산 베어스의 경기, 5-1로 승리를 거둔 KIA 선수들이 하이파이브 하며 기뻐하고 있다.

승기를 잡은 KIA는 9회 1점을 추가해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 김혜선, KLPGA SK핑크스서 연장 끝 생애 첫 우승

강풍 탓 최종 3라운드 취소...2라운드 후 연장



27일 제주 서귀포에 위치한 핑크스 GC에서 열린 SK 핑크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 1라운드를 마친 김혜선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선(20·골든블루)이 한국어 자프로골프(KLPGA)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김혜선은 29일 제주도 서귀포시

핑크스골프클럽(파2·649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SK핑크스·서울경제 레이디스 클래식(총상금 6억원)에서 연장 끝에 이정은(21·토

니모리)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최종 3라운드는 강풍으로 취소됐다. 지난해 정규투어에 데뷔한 김혜선은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상금 1억2000만원을 받았다. 시즌 5승에 도전했던 이정은은 연장에서 고비를 넘지 못했다. 강풍 탓에 정상적인 경기가 어렵다고 판단 3라운드를 취소하면서 2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였던 이정은과 김혜선의 연장전을 통해 우승자를 가렸다. 둘은 전날까지 나란히 14언더파를 쳤다. 연장전은 16(파6), 17(파3), 18번(파4)홀 세 홀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16번과 17번홀에서 나란히 파를 기록한 둘의 희비는 마지막 18번홀에서 갈렸다. 김혜선이 파를 유지하며 연장에서 이븐파를 친 반면 이정은은 2번째 샷이 그린 앞 불 옹덩이에 빠져 벌타를 받았고 결국 더블보기를 기록했다. 김혜선은 1~2라운드와 연장에서 단 1개의 보기도 범하지 않는 안정감을 과시했다.

## ‘남피겨 기대주’ 차준환, 시니어 데뷔전서 9위

女 안소현은 동메달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기대주인 차준환(16·휘문고)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시니어 그랑프리 데뷔전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는 데 실패했다. 차준환은 29일(한국시간) 캐나다 서스캐처원주 리자이나에서 열린 2017~2018 ISU 피겨 시니어 그랑프리 2차 대회 스케이팅 캐나다 인터내셔널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41.86점을 받았다.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68.46점을 기록한 차준환은 합계 210.32점으로 9위를 차지했다. 2016~2017시즌 주니어 그랑프리 무대에 데뷔해 2개 대회 연속 우승과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동메달,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5위 등 꾸준히 성적을 냈던 차준환은 시니어 데

뷔전에서는 다소 주춤했다. 아직 좋지 않은 발목 상태가 연기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차준환은 이날 기술점수(TES) 72.14점, 예술점수(PCS) 70.72점을 얻었다. 시작부터 불안했다. 차준환은 첫 점프인 쿼드러플 토투프에서 회전수 부족으로 감점을 받았고, 쿼드러플 살코에서는 완벽한 착지에 실패했다. 이후 점프에서도 몇 차례 크고 작은 실수가 나왔다. 전체 1위는 일본의 우노 쇼마에게 돌아갔다. 우노는 합계 301.10점으로 경쟁자들을 여유있게 따돌렸다. 2위 제이슨 브라운(미국·261.14점)과는 40점 가량 격차를 보였다. 2017~2018 ISU 쉐린저 시리즈 미네스카-아레나 아이스 스타 대회에 출전한 여자 싱글 안소현(16·신목고)은 총점 169.22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5 주니어그랑프리 6차대회에서 수립한 개인 최고점(153.46점)도 같이치렀다. 안소현은 “이번 대회는 메달도 따고 개인 최고점도 달성했다. 목표 삼은 세계선수권대회 기술점도 획득해 뜻깊다”면서 “올림픽 선발전이 남아있는 만큼 더 성장해 평창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허훈·양홍석, 1·2순위로 KT라면...3순위 KCC는?

오늘 프로농구 국내선수 신인 드래프트 개최



지난 9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2017 남녀 대학농구 리그 챔피언결정전 2차전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기. MVP를 거머쥔 연대 허훈이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프로농구 2017년 국내선수 신인 드래프트가 다가왔다. KBL은 30일 오전부터 잠실학생체육관에서 2017 KBL 국내선수 트라이아웃과 신인 드래프트를 개최한다. 총 44명이 프로 진출에 도전한다. 지난주 지명 순서 추첨을 통해 부산 KT가 전체 1·2순위를 가졌다. KT는 현재 국가대표팀 감독의 차남 허훈(연세대 4년)과 조기 프로

진출을 선언한 양홍석(중앙대 1년)을 지명할 게 유력하다. 허훈과 양홍석은 일제감치 이번 드래프트의 1순위 후보로 꼽혔던 이 둘이다. 용산고~연세대를 거친 허훈은 180cm로 공격형 가드다. 외곽슛과 개인기를 겸비했고 허재 감독을 닮아 배점이 두둑하다는 평가다. 국가대표도 경험했다. 허훈(상무)은 2014년 드래프트

트에서 전체 5순위로 프로에 입단했다. 형보다 높은 순위 지명여부 확실한 가운데 1순위 지명여부가 관심이다. 농구계에선 허훈이 1순위로 지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위기다. 허훈과 마찬가지로 성인 국가대표를 지낸 양홍석은 대학 1학년만 마치고 프로에 진출한다. 부산중앙고 시절 특급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원래 200cm 장신 포워드로 주목 받았지만 드래프트를 앞두고 KBL의 측정 결과 196cm인 것으로 나왔다. 매력에 반감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슛, 드리블, 패스 등에서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게 장점이다. 둘의 KT행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오히려 3순위와 5순위 지명권을 가진 전주 KCC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한양대 출신 포인트가드 유현준(한양대 2년)이 가장 유력한 3순위 후보다. 역시 조기 진출이다. 178cm 가드로 센스가 좋다는 평가다. 이번 드래프트에 나오는 자원 중 정통 포인트가드에 가장 가까운 유형이다. 추승균 KCC 감독도 우선 순위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상민 삼성 감독은 “공을 뿌려주는(넓은 시야에서 패스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탐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4순위는 서울 SK가 가졌다. 김국찬(중앙대 4년), 안영준(연세대 4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 중 4순위에서 지명 받지 못하는 선수는 5순위로 KCC 유니폼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추 감독은 “SK의 선택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기량이 예전만 못해 당장 순위싸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선수는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김진용(연세대 4년), 이우정(중앙대 4년), 하도현(단국대 4년), 김낙현(고려대 4년), 이민영(경희대 4년), 일반인 참가자 이주환(브리검명대) 등이 구단들의 관심을 받는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선발된 선수들은 2017~2018시즌 정규리그 2라운드 시작인 11월5일부터 출전할 수 있다.

뉴시스

## ‘군대스리가’ 함께 뛰고 싶은 축구선수 1위는?

최근 ‘군대스리가’에서 함께 뛰고 싶은 프로 축구선수를 묻는 설문조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군대스리가’는 군대와 독일 프로축구 리그 분데스리가의 합성어로, 군대에서 하는 축구를 일컫는 은어다.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 ‘군대스리가’에서 함께 뛰고 싶은 프로축구선수는? 이라는 주제로 지난 9월22일부터 1달 동안 국방망(인트라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손흥민(토트넘) 선수가 전체 604명 가운데 135명(22.4%)의 지명을 받

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92명(15.2%)이 지명한 한국 축구의 전설 박지성 선수가 차지했다. 3위는 80명(13.2%)이 지명한 국가대표 미드필더 기성용(스완지시티) 선수가 차지했다. 38세 나이로 국가대표에 선발돼 화제를 모은 바이어킹 이동국(전북 현대)선수는 4위(61명·10.1%),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에서 뛰고 있는 이승우 선수(베로나)는 6위(44명·7.3%), 박주영 선수(FC서울)는 8위(30명·5%), 이근호(강원C)선수는 10위(23명·3.8%)를 차지했다.